



무릎으로  
기도문 모음집 만나는  
하나님

창립 100주년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II 매일공동기도

무릎으로  
기도문 모음집 만나는  
하나님



##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9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유림 회장

예수님을 그린, 수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겻세마네 기도’일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핏방울 같은 땀과 눈물을 쏟으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39)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과정입니다.  
정직하고 진솔하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영적 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호흡이며,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성령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온 맘과 몸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서울YWCA 이사와 실무자가  
감사의 씨줄과 소망의 날줄이 되어 기도를 이어왔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서울YWCA 현안을 위해,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해,  
이사·위원·실무자를 위해, 세계를 위해  
48명이 102편의 기도문을 지으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서울Y 안에서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서울Y 이사·위원·실무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에베소서 6:18)

## 감사 드릴 뿐입니다

김재신 기도분과 위원장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어린시절 불렀던 찬양이 떠오릅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는 2022년은 서울 YWCA에게는 다른 어느 해보다 가슴 벅찬 감동과 감사가 있는 한해입니다.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기도분과위원회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서울Y의 기도의 마음을 모아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실무자 위주로 진행되었던 기도회를 월 정례 중보기도회로 하고, 각 위원회마다 주관이 되어 위원회 특색에 맞게 준비하여 ‘창립 100주년 한마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중보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매일 중보기도회를 통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체가 큰 은혜이고 기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도의 마음을 모은 것은 지하 3층에 새롭게 마련된 기도실에서의 ‘창립 100주년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I - 화요개인기도’로 진행된 연속 기도였습니다. 기도분과위원의 감사한 헌신으로 지하 3층에 새롭게 마련된 기도실은 섬과 더불어 기도의 향을 피우기에 넉넉하였습니다. 100년을 넘어 앞으로 100년 기도실의 기도의 향이 더 멀리 흘러가며 서울YWCA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며 소망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립 100주년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II - 매일공동기도’는 서울Y의 많은 이들이 함께 한 커다란 결개였습니다. 기도분과위원회 위주로 매일 작성되던 공동기도문이 확대되어 이사 자원활동가와 관국장, 부장, 팀장에 이르는 실무활동가들의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요일마다 정해진 제목에 따라 있는 곳, 있는 시간은 다르다 할지라도 한목소리로 함께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외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준비하고 마련된 매일공동기도문을 100주년 기념으로 편집하여 발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계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지나 온 100년보다 앞으로 나아갈 100년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 100년 서울YWCA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독교여성 시민단체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 기획 배경

서울YWCA 창립 100주년을 기도로 준비하고자 진행한 프로젝트

창립 100주년을 맞아 21년 5월-22년 12월까지 지나온 100년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맞이할 100년을 준비하며 기독교여성시민단체로서 여성의 역사를 더 새롭게 바꾸어가고, 서울Y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길 소망하며, 이사와 실무진들이 5개의 기도 주제에 따라 한목소리로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작성한 공동기도문을 한 권의 책으로 편집, 출판

### 진행기간

2021년 5월-2022년 12월 1년 8개월간

### 참여자

이사 25명, 사무총장·관국장 9명, 부장 12명, 팀장 2명, 총 48명

### 기도주제

요일	주제
월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화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수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목	이사·위원·실무자를 위하여
금	세계를 위하여

2021년 5-6월까지 6개 기도제목 토요일까지 진행, 이후 5개 기도제목 금요일까지 진행

## 기도문 작성자

\* 2021년 5월-6월

요일	주제	5월	6월
월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이경연 이사	이희전 이사
화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정수경 이사	이경연 이사
수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김재신 이사	정수경 이사
목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백향덕 이사	김재신 이사
금	이사·위원·실무자를 위하여	배은경 이사	백향덕 이사
토	세계를 위하여	황성연 이사	배은경 이사

\* 2021년 7월-9월

요일	주제	7월	8월	9월
월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배은경 이사	조연신 제2부회장	백향덕 이사
화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이희전 이사	최한나 이사	배은경 이사
수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이경연 이사	한혜영 제1부회장	이희전 이사
목	이사·위원·실무자를 위하여	정수경 이사	이유림 회장	이경연 이사
금	세계를 위하여	김재신 이사	이복희 이사	정수경 이사

\* 2021년 10월-12월

요일	주제	10월	11월	12월
월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김재신 이사	김혜옥 국장	강민아 관장
화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백향덕 이사	김양선 국장	양선희 사무총장
수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배은경 이사	이종미 국장	민혜경 관장
목	이사·위원·실무자를 위하여	이희전 이사	최 봄 국장	김은희 관장
금	세계를 위하여	이경연 이사	양선희 사무총장	우영숙 관장

\* 2022년 1월-3월

요일	주제	1월	2월	3월
월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이인순 부장	오점희 부장	김경화 부장
화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박미용 부장	방윤옥 부장	백옥선 관장
수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양진화 부장	김예리 부장	오경아 팀장
목	이사·위원· 실무자를 위하여	박진선 부장	김현일 부장	성지희 부장
금	세계를 위하여	김미현 부장	박혜리 부장	정승원 팀장

\* 2022년 7월-9월

요일	주제	7월	8월	9월
월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김명희 이사	임혜원 이사	조종남 직전 회장
화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배은경 이사	황혜진 이사	김양선 사무총장
수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7월 서울YWCA 공동기도문	현명금 이사	강민아 관장
목	이사·위원· 실무자를 위하여	이지선 이사	이경연 이사	김은희 관장
금	세계를 위하여	이옥희 이사	정선덕 이사	이종미 관장

\* 2022년 4월-6월

요일	주제	4월	5월	6월
월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김재신 이사	이유림 회장	전현숙 이사
화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백향덕 이사	한혜영 제1부회장	이은령 이사
수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이희전 이사	조연신 제2부회장	배정미 이사
목	이사·위원· 실무자를 위하여	정수경 이사	최한나 이사	송길례 이사
금	세계를 위하여	황성연 이사	이복희 이사	김선희 이사

\* 2022년 10월-12월

요일	주제	10월	11월	12월
월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우영숙 관장	김예리 부장	박미용 부장
화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백옥선 관장	박진선 부장	오점희 부장
수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민혜경 국장	양진화 부장	이인순 부장
목	이사·위원· 실무자를 위하여	최 봄 국장	김현일 부장	성지희 부장
금	세계를 위하여	김혜옥 국장	박혜리 부장	김경화 부장

# 목 차

## 2021년 매일공동기도문

5월	13
6월	20
7월	27
8월	33
9월	39
10월	46
11월	52
12월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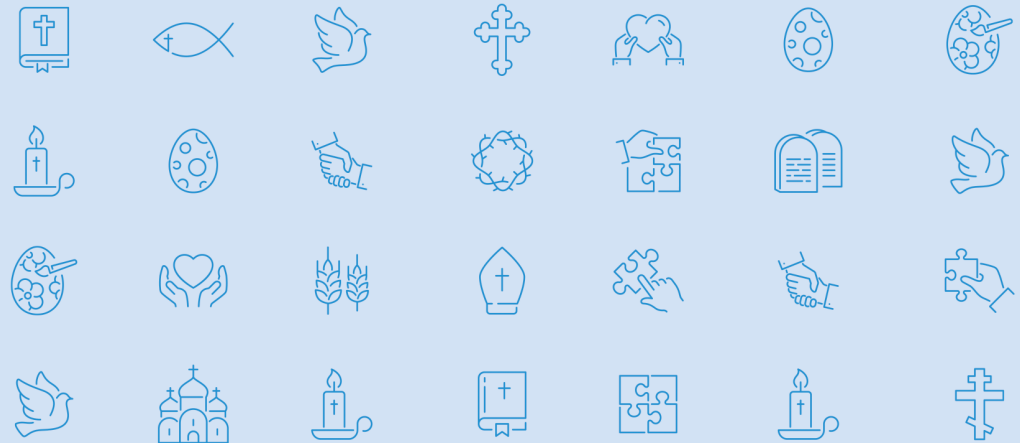
## 2022년 매일공동기도문

1월	65
2월	72
3월	79
4월	86
5월	92
6월	98
7월	104
8월	111
9월	117
10월	124
11월	132
12월	138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2021  
05

## 매일공동기도





월요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을 잠재워 주시고  
질서와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애통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관용과 포용이 회복되어  
생명살림의 정치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세밀한 동행으로 지치지 않게 힘주시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감내할 수 있도록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강력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의 어려움 속에서 민족이 하나 되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민족의 지력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히 한민족인 북녘 동포가 어려운 식량난과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새 희망이 생기게 하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계속 되는 유행사태의 미안마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고 민주화의 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언어를 주셨으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감사를 놓치곤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다시 뜨거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견실히 서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리더의 역할을  
감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경연  
기도분과  
위원

화요일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서울YWCA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100년 전 YWCA를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처음 뜻과 첫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서울YWCA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과정이 되고,  
100년의 시간을 초월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에서 서울Y와 속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순간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법인전환을 앞두고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조롭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법인설립 절차(서류준비과정, 법인신고절차, 세무회계신고 과정 등)에  
필요한 자원과 준비하는 지도자와 실무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사,  
약속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히 일하심을 체험하고,  
법인전환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법인전환을 통해 새로운 비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서울YWCA가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 여성과 지역사회,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곳에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하나님의 기관 되게 하옵소서.

정수경  
기도분과  
위원

수요일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힘없고 연약하여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쓰레기로 가득 차며, 먹을 것이 차고 넘쳐  
풍성함의 감사를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굶주림으로 거리를 방황하고  
한 끼 해결을 버거워하는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김재신  
기도분과  
위원

여전히 몸서리치며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7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는 세월호 희생자들,  
경제부흥과 산업개발의 화려함 속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산업재해의 피해자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당 해고자들,  
자국에서 벌어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이 땅을 찾았지만  
이국의 낯설음과 배척 속에서 떠돌며 방황하는 수많은 난민들...

이들이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저들의 고난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또한 저들에게는 상황에 매몰되어 포기치 않으며,  
외로움과 약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주옵소서.

목요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늘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셔서 우리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몸과 마음이 아픈 이웃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을 늘 신뢰하게 하옵소서.

백향덕  
기도분과  
위원

무엇보다 오랜 동안 코로나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한 이들을  
기억하셔서 돌보시길 기도하며,  
우리 또한 그들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시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금요일

이사·위원·  
실무자를  
위하여

이사·위원·실무자가 모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서울YWCA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Y에 속한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늘 깨어 있고 굳건한 믿음을 갖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배은경  
기도분과  
위원장

기꺼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넘치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하신 주님!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 받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맡겨진 의무가 아니라 나의 의지로 맡은 Y의 일에 억지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실무자·위원·이사가 모두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소임은 다르지만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돕는 사랑의 유기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Y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Y에 속한 모든 이들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서울Y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여러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토요일

세계를  
위하여

황성연  
기도분과  
위원

하나님 이 시간 세계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환경과 우주생태를 파괴하였습니다.  
생태계의 파괴는 탄소발생으로 인한 여러 재앙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과 무력을 앞세워 평화를 깨뜨리고  
인간의 생명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호소하오니,  
우리에게 회개와 생명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여기에 살아 숨쉬어 가는 온 세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행동이 회복의 결과를 이뤄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세계의 곳곳에  
진정한 주님의 치료와 회복과 긍휼을 베푸시고  
크신 위로와 평화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미얀마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진정한 하늘의 평화와 주님의 뜻이 그곳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도 있었던 일이기에  
더 가슴 아프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미얀마의 아픔이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도록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마다 개인마다 처한 사정과 형편은 다르지만  
이제는 더이상 각 나라와 개인이 욕심과 욕망의 도구가 되지 않고,  
병들고 지친 지구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연합하고 협력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2021  
06

## 매일공동기도



월요일

###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이희전  
기도분과  
위원

오늘도 한량없는 자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 없는 세상살이에 우리는 지쳤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은 꿈꾸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일상의 일들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외형을 가꾸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가꾸

일상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화요일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이경연  
기도분과  
위원

법인화 작업에 따른 절차적인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의 승인, 자산이전 절차와 등기, 법인화에 따른  
세무, 회계 등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무리 없이 잘 해내고 싶습니다.  
법인구조에 맞게 부속시설과 조직체계를 잘 구성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당신의 지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의 생각으로 가름하여 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앞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종종거리며 달음박질쳐 나가는 교만을 부리지 않게  
주님께서 모든 과정과정,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당신의 권세와 권위로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센터 등 수익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보다 더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들도 주님의 주관 아래 속히 안정되어  
주님의 지체인 서울Y가 정의·평화·생명살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서울Y 리더십,  
사무총장과 실무활동가들을 강력히 붙들어 주옵소서.  
사단법인이라는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깊은 고뇌와  
뜨거운 헌신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힘들고, 지치고,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위로의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만 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

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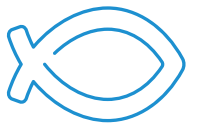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정수경  
기도분과  
위원

나사로를 친구로 여기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무덤에서 불러내 주신 예수님!  
영적으로 죽어가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말씀의 진리,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모르는 고통으로 아파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돕게 하옵소서.  
한순간의 실수로 사회와 격리되어 후회의 몸부리치는  
소년원의 청소년들을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고 인도하사  
우리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삶의 소망을 주님 안에서 찾게 하옵소서.

폭력과 빈곤, 그리고 질병으로 좌절하는 노인과 여성,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함께 숨쉬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서울YWCA가 되게 하옵소서.



목요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김재신  
기도분과  
위원

이 땅에 주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함께 돕는 이들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이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긴 질병으로  
치료와 후속 극복 과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아픔으로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  
이 시간 일일이 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질병과 이로 인한 투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주여 공활히 여기시옵소서.

치료의 빛을 비추셔서 소생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의 가족이 함께 지는  
공동의 아픔도 헤아리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저희 서울YWCA 돌봄과살림을 통해  
병원에서 가정에서 돌봄을 주고받는 이들의  
형편과 상황을 인도하시어  
서로간에 회복과 보람이 있게 하옵소서.

금요일

이사·위원·  
실무자를  
위하여

백향덕  
기도분과  
위원

하나님이 서울Y를 사랑하셔서 지금 여기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시고 세워 주심 감사드립니다.

Y를 세우신 뜻에 따라 기도와 섬김과 충성됨으로 함께 한  
여러 이사·위원·실무자들을 기억하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돌보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 부르신 뜻을 이루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뜻인 창조의 정신인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시는 일에 저희가 헌신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서로 협력하여 이 맡기신 일들에 충성할 때  
우리를 통해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며  
서로 힘써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사·위원·실무자들의 각 개인의 삶의 시간들과 그 가정에도  
영육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도록 은혜주시기 기도드립니다.



토요일

세계를  
위하여

배은경  
기도분과  
위원장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린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땅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지으신  
자연과 환경을 함부로 사용함으로  
이상기온, 지진과 기근, 홍수, 전염병 등을 야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해주시고 새롭게 고치시옵소서.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창조질서를 잘 지키고, 절제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하고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내전이나 나라간 전쟁, 혹은 테러로 죽거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세계 곳곳의 지도층의 부패로 혹은 내전으로,  
또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해주시고 그들의 탄원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굶주리거나 병든 몸과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속히 그들에게 안정된 환경과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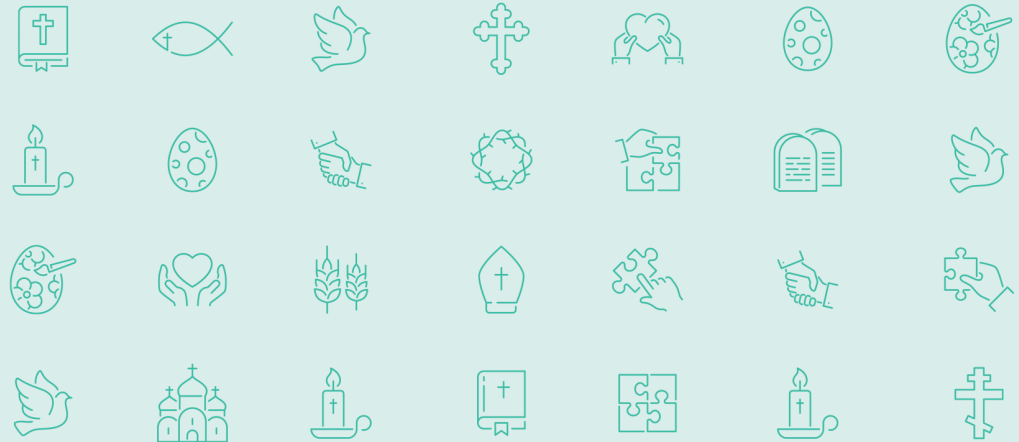
특별히 미안마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유를 위해 군부에 맞서 죽음의 위협 앞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미안마의 국민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희생과 외침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오며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2021  
07

## 매일공동기도



월요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배은경  
기도분과  
위원장

다양한 갈등을 벗어나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빈부의 갈등, 이념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  
남녀의 갈등 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막힌 담을 열어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이 나라 국민 모두가 사랑과 신뢰,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갖고  
함께 더불어 사는 평화로운 사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나라와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마음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진실함을 주셔서  
정치적 인기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나라의 미래를 길게 바라보는 안목을 주시고  
정의롭고 바른 사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보존되게 하시고  
평화의 통일 한반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의 터전 위에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억압과 고통당하는 북한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곧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믿는 이들이  
세상의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화요일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이희전  
기도분과  
위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20)

항상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처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YWCA연합회로부터의 자산 이전에 따른 사무적인 행정절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100년사 출판사를 집필 중인 집필자에게 강건함과 지혜로움을 주시고  
각 위원회와 부속기관, 회장님을 비롯한 이사 위원님,  
사무총장님과 실무 활동가의  
각 가정과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을 늘 주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7월에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특히 회원증모를 기억하사 많은 이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로 기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걷어가는 발걸음마다  
생명과 평화가 새겨지게 하옵소서.





수요일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이경연  
기도분과  
위원

소외된 이웃과 아픈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 미얀마 등 자유로부터 소외되어 독재에 신음하는  
이웃 나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윤 추구에 밀려 안전과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광주 건물 붕괴 사고의 사상자와  
이천, 쿠팡 등 물류창고의 화재로 발생된 사상자들을 위해  
깊은 애도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부의 지배구조에서 소외된 택배 노동자의 사망,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따라 살 수 있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단함과 생명의 어두움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당신께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좌절하고, 용기를 잃어  
자꾸 위축되오니 주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 안에서 견디는 것만이 축복의 길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신이 혼미하고 혼란하여도 주님을 향한  
나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동행자이시며,  
나의 베키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소망하며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당신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 지은 자를 먼저 찾으셨던 주님처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처럼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던 주님처럼 생명을 살려내는 창조의 사역에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거룩한 하늘나라의 시민 삼으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성품을 닮아 가게 하옵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오늘 나의 고백으로 드리며  
항상 감사합니다.

목요일

이사 · 위원 ·  
실무자를  
위하여

정수경  
기도분과  
위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3-16)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서울YWCA 목적대로  
이사·위원·실무자로 불러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일매일 깨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의 복을 누리고 나누게 하소서.

저희에게 맡겨 주신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의 능력을 뽐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지체의 어려움을 위로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여 놀랍고 위대하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소서.

서울YWCA 창립 100주년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저희들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신실한 삶의 모습을 통해 어둡고 어지러운 그곳에  
빛과 소금되게 하시고 정의 · 평화 · 생명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요일

세계를  
위하여

김재신  
기도분과  
위원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좁은 시각을 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서 눈을 떠 주변을, 나아가 열방을  
가슴에 품으며 기도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다양한 국가, 다양한 종족 가운데 수많은 분쟁과 기근과  
다툼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어 포기하지 않는  
그릇된 욕망이 또 수많은 피해와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곳곳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상 기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해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잘못에서 비롯됨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몸살이를 하는 이때,  
백신 공급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소수 종족, 약소국가에까지  
보급될 수 있도록 상황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더이상 지구가 생명을 잃지 않도록  
전염병의 공포를 멈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서로간에 존중되고 섬김받는 나라 되도록  
이 시간 특별히 미안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폭력이 더이상 미안마에서 발생하지 않으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정권이 속히 미안마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밖에 알지 못하고 극도로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시선에 머무는  
어리석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뉴스에 주님의 시선을 갖고 바라볼 수 있게 하옵시며  
주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2021  
08

매일공동기도



월요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조연신  
제2부회장

희망과 꿈을 되찾는 국가와 교회

소망을 주시는 주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낙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나라와 교회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생계가 위협받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코로나 치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희망을 위한 정의와 공정 등 발전을 위한 토대 회복

하나되지 못하는 국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지켜주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화평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국민들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최한나  
제1회계  
이사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14)  
주께서 십자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사야 26:3)

참, 좋으신 주님!  
더위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피로감이 절정에 이른 여름날입니다.  
8월, 십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중에  
당신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YWCA의 처음 백년을 마무리하며 또다시 주어지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귀한 시기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겪어보지 못한 낯선 상황 속에서 비대면 총회와 법인화를 비롯한  
상반기 모든 과정을 섬세하게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간구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먼저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중보기도회와 영성강좌를 진행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법인화에 따른 부수적인 현안들과  
봉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방향이 논의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의견이 다름으로 인한 갈등이나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지혜를 구하오니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그 발길이  
우리의 모습이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수요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상처 입은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우심에 기대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엎드립니다.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 무더위에 더해  
마음과 육신에 생긴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통증과 두려움,  
치료에 대한 희망과 흐트러진 일상에 대한 불안,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두려움과 걱정을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병상에 누운 모습을 지켜보는 자식들과 아이가 아파  
가슴 졸이는 부모들, 혹은 가까운 친지, 친구, 이웃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드리는 기도 안에서 위로와 쉼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아픈 와중에 기도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사람들을  
저희가 기억하오니  
그들의 무거운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은사로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기도가 곁에 있는 아픈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혜영  
제1부회장

목요일

이사 · 위원 ·  
실무자를  
위하여

저희를 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 서울YWCA의 활동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자격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사 · 위원 · 실무자로 세워주셨으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대로 주님을 섬기듯 서로를 섬길 때  
Y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화와 풍성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유림  
회장

먼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저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마음에 채워 저희 안의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내 기준의 삶을 사는 기만에서 벗어나 예수님 삶을 본받는데  
태만하지 않음으로 예수님과 일치된 거룩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불평과 불만, 천박한 푸념이나 배려 없는 말로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참되고 바르며 선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행동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이 사랑에 무능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희의 시선이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심정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돌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서울Y 활동가들의 사랑을 담은 믿음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불어넣는  
서울YWCA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금요일

세계를  
위하여

이복희  
제1서기  
이사

사랑의 주님,  
나라를 빼앗기고 여성교육에 대한 이해조차 없던 이 땅에  
서울YWCA를 허락하시고 그늘에 가리고 고뇌에 싸인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육하게 하시며  
99년을 한결같이 인도해 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치유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만져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폭력과 불평등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사회 곳곳에 아직도 만연한 차별과 편견이 개선되고  
낮은 곳에 놓인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존중하는 사회 되게 하소서.

가난과 기아 속 교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삶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며  
무너져 내리는 수많은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인류가 훼손하고 파괴한 자연으로 인한  
기후변화위기의 재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스리고 보존해야 할 이 땅에 대한 책임을 깨닫게 하시고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회복을 위하여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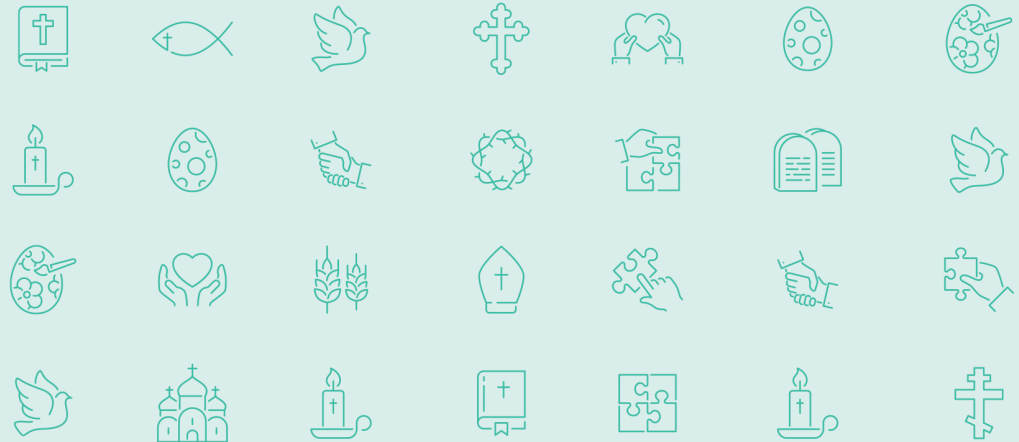
마침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  
폭력과 자기 위안보다 하나님 안에 형제자매 됨을 더 기뻐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2021  
09

## 매일공동기도



월요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백향덕  
기도분과  
위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마옵소서 (하박국 3:2)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3)

주님, 오늘 우리는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가득한 나라를 보며  
위기의 유대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를 기억합니다. Y 회원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나라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땅의 궁핍과 아픔의 모든 시간 가운데 이 나라를 맡아 섬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신 양심에 따라 충성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정치·사회·경제·교육분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지쳐가는 국민들의 고통을 진실되게 공감하며  
아픔을 헤아리며 정책을 수행함으로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며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모임이 어려운 이 시기에 무엇보다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때에 교회가 먼저 교회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며  
주님의 사하심과 긍휼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부르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게 도우시며, 나라를 위해,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와 섬김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되게 하소서.

화요일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배은경  
기도분과  
위원장

서울Y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새롭게 법인으로 도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법인 설립은 잘 진행되었지만  
남은 후속화 작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모르는 것 투성이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기울이고 온 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소견대로 하게 마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당장의 이익을 쫓아가지 않고  
긴 안목으로 판단하여 바르고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100년 이후 서울Y의 길과 방향을 앞서 인도해주시길 원하고  
저희는 깨어 있어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법인화에 따른 부속시설의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  
무리없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원하고 바라던 서울Y 건물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남은 자산이전 문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합회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많은 실무의 일을 맡아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실무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지지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로운 이 모든 과정 중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배려함으로  
넉넉하고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함께 일하시며 큰 계획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수요일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이희전  
기도분과  
위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시편 41:2-3)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가난과 불평등,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에 내몰려  
절망의 끝에 서있는 이들을 붙드사  
그들이 홀로 외로움과 무서움과 아픔 속에 고통받지 않고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 세상에 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동안 말로만 사랑을 나누겠다고  
고백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병원도 가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아시안들과 저소득 국가 국민들을  
기적의 손길로 치유하는 주님의 역사가  
전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이티 지진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탈레반의 점령으로 죽음의 나라가 되어 버린  
아프카니스탄의 사람들과 특히 무자비한 만행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되는 여성과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위협에 처한 사람들의 탈출을 위해  
구하러 들어간 군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선물 되게 하시고  
없었던 소망을 찾으며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낼 담대한 용기와  
주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

이사 · 위원 ·  
실무자를  
위하여

이경연  
기도분과  
위원

하나님의 지체 서울Y를 섬기는 이사 · 위원 · 실무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살림의 역사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서울Y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힘과 지혜와 당신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잘 극복하고,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서울Y를 섬겨 왔던 이들의 열정과 마음 쏟음,  
수고, 그리고 기도가....  
이제 100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함께 해주셨던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제로도 영원토록 우리가 당신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세밀한 동행을 간절히 바랍니다.

100년을 앞에 두고 법인화 과정 가운데  
매순간마다 주님의 세밀한 살피주심과  
카이로스를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진행되어지는 많은 절차마다  
우리 주님이 호홉처럼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서울Y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등불되어 주시고  
우리들이 나아가는 길에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역사에 신실한 일꾼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울Y를 섬기는 모든 이들과  
그 가정, 그가 속한 공동체 위에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시어 내적 인간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상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2:11-12)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하늘 권세 되찾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최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피조물들의 끝이 없는 욕심과 죄악으로 하늘과 땅, 물, 모든 만물이  
오염되어 가고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자국민들마저 죽이는 전쟁과 기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의 공포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들을 추악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용서하옵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탈레반의 박해과 위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프간의 여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환난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셔서 사단의 꾀박과 시험에도 마침내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믿고 끝까지 버티고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군부의 독재와 위협에도 자유를 갈구하는  
미얀마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미얀마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속히 이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총칼의 폭력 아래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  
국민들의 희생이 더이상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YWCA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의 신음소리에 귀기울이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2021  
10

## 매일공동기도



월요일

###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김재신  
기도분과  
위원

이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오랜 역사의 고난 중에서도 세계 열방에  
더없이 복된 국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복에 감사하며

이제는 더 열악하고 빈궁한 나라와 민족을 돌보며,  
다양함과 어울어짐을 함께 실천하는 나라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나뉘어진 이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진정한 평화와 화합이 문화, 정치, 경제를 비롯 온방면에서 이루어져  
온세계가 기뻐하며 축하할 살롬의 축제가  
이 한반도에서 펼쳐지게 하옵소서.

또한 특별히 한국의 교회를 주목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이들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남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진정한 예배의 부흥을 이곳에 보게 하옵소서.



화요일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창립 100주년이 되기까지  
서울Y를 항상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서울Y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데 쓰임받게 하심과  
앞으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울Y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법인 설립과정과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세밀하게 도우시고 인도해가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향해 갈 때  
지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봉천종합사회복지관과 영등포·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의  
법인이전 과정 등 여러 부속시설들의 문제들을 함께 논의할 때  
바른길로 섬세하게 인도해주시고  
토지자산 이전 절차와 이전에 필요한 자원마련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늘 많은 수고와 섬김으로 힘쓰시는  
실무진들 기억하사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사님들 또한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 가게 도와주옵소서.

백향덕  
기도분과  
위원

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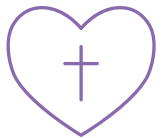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빈곤, 질병, 고독,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지길 간구합니다.  
각 사람에게 상황과 형편에 맞는 도움의 손길과  
보살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짐으로  
천국 소망을 내려주옵소서.

배은경  
기도분과  
위원장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눈물흘리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해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시키시며  
심령의 상함을 위로하시고 깨끗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버지의 그 능력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기적을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저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사랑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요일

이사·위원·  
실무자를  
위하여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5:12)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평화의 꿈을 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서울Y의 법인 안정화를 위해  
우리 모두는 숨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내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들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우리의 손을 잡아  
안식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정착화되는 과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새로운 업무와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실무자들의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담대한 용기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님들과 위원님, 실무자들 각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아픈 자는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을 하기보다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받아 나도 그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희전  
기도분과  
위원

금요일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가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거룩한 삶,  
소망의 삶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의 손을 풀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와 평등, 인권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한 자들과  
종교와 민족 간의 분쟁을 끝없이 치르고 있는  
시리아, 아프간, 미얀마, 팔레스타인 등  
고난 중에 있는 나라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삶과 죽음의 사투를 벌이는  
환자와 의료진, 봉사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권위로 동행하여 주셔서  
생명 살림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활한 백신 공급으로 강대국에 편중된 백신 불균형이  
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발전이 고도화되면서 기후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터키, 스페인 등 큰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폭우와 홍수로 생명을 잃고  
폭염 등의 자연 재해로 낙심과 좌절에 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 자 되어 주시고, 벗 되어 주시며  
생명의 호흡 되어 주옵소서.  
당신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역사하셔서  
지구를 살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눈으로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온전히 보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의 신령한 눈, 영의 눈,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몸짓을 닮게 하옵소서.

살림의 세상을 꿈꾸며  
화평의 뜰을 일구는 평화의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경연  
기도분과  
위원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2021  
11

## 매일공동기도



월요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김혜옥  
본부 국장

모든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상했던 우리들이 이제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며  
단계적으로 일상생활 회복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핍과 혼돈으로 흔들렸던 일상들이 사회복귀 절차에 따라  
안전하고 평화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이 열리는 세상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적인 염려들을 내려놓고 주의 언약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성실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돌보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권력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의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지혜로운 판단력과 주님의 의를 그들에게 허락하소서.  
저들이 국민들을 의로 판단하며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판단할 수 있게 하소서. 저들이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게 하소서.  
자기들의 배부름보다 가지지 못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굶주림을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고, 가진 권력으로  
모든 이들에게 공평함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러할 때 주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로 인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많아지게 하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나누고 베풀어 주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교회가 많아지게 하소서.  
세상 모든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온 땅에 퍼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서울YWCA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기독교여성시민단체로 설 수 있도록  
지난 100년의 역사를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으로 새로운 100년을 출발하는 서울YWCA를  
축복하여 주시고 100년 전 서울Y를 설립한  
선배들의 첫 마음과 사명을 기억하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그 길을 따르게 하소서.

김양선  
본부 국장

서울YWCA가 청년운동 · 여성운동 · 기독교운동 · 회원운동 ·  
국제운동을 펼치는 공동체이며 운동체임을 알게 하시고,  
100년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조직운동체로 거듭나도록  
방향과 길을 깨달아 함께 실천하고 활동하게 하소서.

100년을 시작하며 단독법인으로 서기 위한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협의와 필요한 자원의 확보 등 단계마다  
우리의 바람과 필요를 아시기에 주권자이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게 하소서.  
봉천종합사회복지관과 누리봄, 강남청소년수련관,  
영등포와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의 법인 이전이 힘든 여정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따르게 하소서.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에게 주어진 역할에 감사와 열정,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Y를 통해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활동가로서 작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잘못된 생각과 사상, 판단, 마음의 교만,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사랑과 포용, 배려와 이해, 희망을 나누는  
서울Y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수요일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이종미  
본부 국장

“주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사랑과 치유의 주님!  
빛이자 사랑이신 주님!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와 질병으로 힘겨운 사람들에게  
자본이라는 우상의 세상 속에서 착취와 빈곤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등과 차별로 온전한 이웃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 당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와 정치라는 이름으로  
죽음과 상실의 고통 속의 내쳐진 사람들에게  
폭력 앞에서 희망없이 스러져 버리는 작고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 그들을 안아 일으켜 주실 주님!

오늘 주 앞에 우리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늘 주님과 연결되는 삶 속에 살고 싶다면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주님의 발걸음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하시어  
공동체 안에서 이웃이 안식을 얻기까지 나의 안식도 얻지 못하며  
이웃의 안식이 나의 안식이 되고, 이웃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가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믿을 만한 이웃이 되고,  
기댈 만한 친구가 되어 주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와 닿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깊게 묵상합니다.  
누구의 이웃으로 그들 곁에 머물러야 하는지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희망의 불빛을 켜고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소외되고 아픈 곁사람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행동하게 하소서.

모든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대신하여 주권자이신 주가  
내 삶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요일

이사 · 위원 ·  
실무자를  
위하여

최 봄  
본부 국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사랑의 하나님!

사단법인 서울YWCA에 실무활동가와 자원활동가로 불러주셔서  
서울YWCA를 함께 세워가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눈을 들어 생명을 바라보고 살피어  
생명 고유의 가치를 세우는 역할에 충실하게 하여 주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고 합력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체없이 참여하게 하소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며,

서로 사랑하며 채우고 배우게 하옵소서.

모든 활동가들의 각 가정을 세밀히 살피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창립 100주년을 넘어

세상의 변화를 향한 용기를 가지고

정의 · 평화 · 생명 세상 이루는데 귀한 복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요일

세계를  
위하여

양선희  
사무총장

주님, 지구촌 곳곳이 너무 오래 아픕니다.  
 분쟁과 기근, 다툼과 폭력,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로  
 이웃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 모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잃어버리는 세상에서,  
 선한 목자 주님을 닮고 따르는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탕자의 아버지 같은 마음을 불어넣어주셔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신음하는 지구 생명을 살려내는 정책,  
 가난하고 약한 이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정책,  
 폭력과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이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탈레반 정권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아프간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쿠데타에 내전에 코로나까지 겹쳐 신음소리가 더해지는 미얀마에,  
 대지진과 정치적 혼란, 갱단의 범죄로 비명소리가 커지는 아이티에,  
 극심한 물부족으로 생존이 위태로운 아프리카에,  
 주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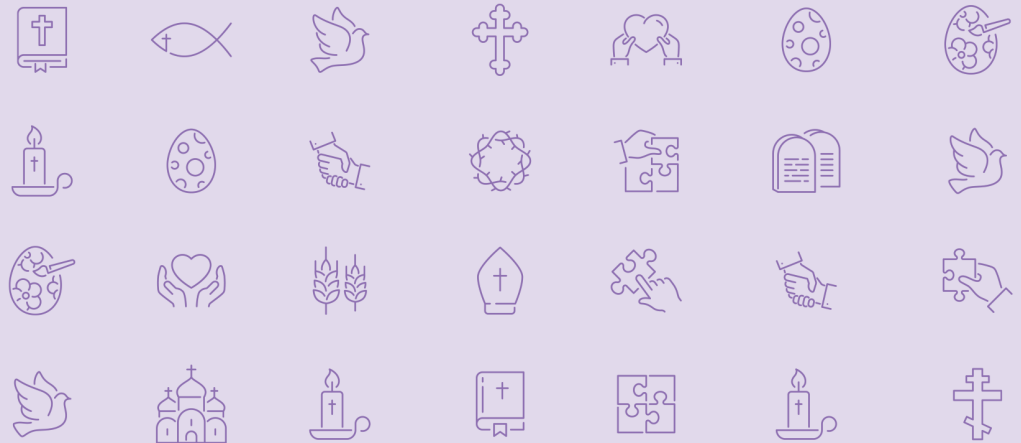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혜택이 가난한 나라에게도 골고루 나뉘지는  
 이웃사랑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웃을 돌보고 살리고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  
 특별히 여성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지구촌의 모든 고통받는 나라와 이웃에게,  
 그들의 가난하고 불안한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실 주님을 믿고 바라며,  
 언제나 모든 이들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2021  
12

## 매일공동기도



월요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강민아  
영등포여성  
인력개발센터  
관장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이후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우수한 방역체계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 현실의 위기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하여도 어떤 일의 결정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느니라 (잠언 16:33)

나라 안팎으로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섭리로 세워진 이 나라에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주님 뜻 가운데 거하며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을 새기며  
교회와 성도가 먼저 회개하고 성경이 가르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존엄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소외되고 연약하며 궁핍한 자를 배려하고  
돌봄으로 따뜻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요일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양선희  
사무총장

서울Y의 알파이며 오메가이신 주님!  
지난 99년 동안 눈과 마음과 이름으로 서울Y에 계셔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눈과 귀를 떼어놓지 않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울Y 앞에 놓인 굽이굽이길을 함께 걸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단법인 전환 후속작업과 자산 이전, 창립 100주년 준비로  
서울Y는 수많은 현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눈길과 마음길을 현안에 머무르지 말고  
현안 너머에 계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크고작은 현안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어린 뜻하심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단법인 전환에 따른 부속시설 이전,  
서울Y 회관 토지 이전에 따른 막대한 세금 부담,  
창립 100주년과 그 너머를 준비하는 기대와 두려움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지치고 고단할 때는 높은 깃발 되어주시는 여호와 닮은,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올 때는 안심시켜주시는 여호와 살롬,  
답답하고 막막할 때는 모든 것을 준비해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날마다 만나처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소담스럽고 알차게 맺어주실 인내와 평화의 열매를 소망하며,  
언제나 우리 손이 하는 일이 잘 되게 축복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민혜경  
노원여성  
인력개발센터  
관장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 혐오와 배타적 마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성별이 다르다고, 나와 피부색깔이 다르다고,  
나와 다른 나라에 산다고, 나보다 어리다고 혹은 나이가 많다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편을 가르고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매 형제이며,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입니다. 성별로, 인종으로, 장애로, 국적으로,  
나으로 차별받지 않게 하시고, 이로 인해 소외당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 곁을 내주어 보듬어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소서.

정의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자본이라는 맘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신 창조세계를 개발과 투기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를 경험하게 되고,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는 인간들을 공격하고 있는 지정입니다.  
이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기후위기로 인한 추위와 더위로 더 많은 고통을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의 욕망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기도하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해주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료되게 하소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곁에 있는 소외된 이웃과 아픈 이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요일

이사 · 위원 ·  
실무자를  
위하여

김은희  
봉천종합  
사회복지관  
관장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38)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서울YWCA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오직 믿음으로 행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서로 격려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며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받아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말고 오직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소속된 부서에서 주어진 일들과 역할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서로의 생각을 보듬어주고 상처를 감싸주어,  
울타리가 되어 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감에  
힘을 더하게 하소서.

100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필요로 하는 일들을 말씀하실 때 겸손히 경청함으로  
거룩한 섬김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금요일

세계를  
위하여

우영숙  
강남  
청소년수련관  
관장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불어닥친 환난의 바람으로  
모두가 깊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도 이 모든 고통을 가르고  
소망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십니다.

주님!  
이 땅에 고통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을 모르고 악한 것을 분별 못하는 세력들에게서  
그들을 건져내 주소서.  
주님의 피땀으로 세우신 이 땅을 어지럽히는  
악의 세력들에게서 구하여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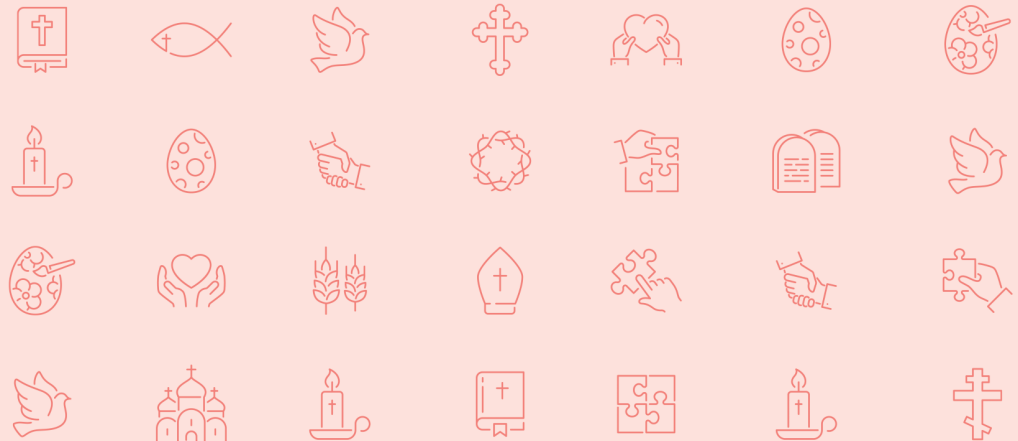
온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고를 어루만져 주시고  
경제의 곤란으로 굶주리는 사람들도 함께 돌보며  
따뜻함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서울YWCA를 통하여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2022  
01

## 매일공동기도



월요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이인순  
돌봄과살림센터  
부장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12)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나라와 교회를 크신 긍휼과 권능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분별하며  
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권한을 선한 청지기로서  
성실과 책임으로 다하게 하옵소서.  
국민의 열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좋은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사회와 경제를 안정시키고 분쟁과 분열이 아닌  
회복과 화합을 이끌게 하옵소서.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불의에서 떠나며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향한 역할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언약 안에서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요일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박미용  
재무회계팀  
부장

지금까지 서울YWCA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한량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매일매일 느끼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난 한 해는 저희에게 참 의미있고 또한 힘든 한해였습니다.  
사단법인 전환과 건물 소유권 이전 등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면서  
때때로 생기는 고비마다 주님은 함께 방법을 찾아주셨고  
함께 고민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걸어 가보는 길이기에 모든 면에서 막막하고 어렵지만  
걱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말씀 굳게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립 100주년 준비, 사단법인 전환에 따른 부속시설 문제,  
토지 이전에 따른 막대한 세금 부담, 사단법인 총회 등  
걱정되고 두려운 현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100년을 맞이하는 새해에도 주님 주신 선한 능력으로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공익법인으로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서울Y를 설립한 목적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수요일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양진화  
평화운동팀  
부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이 땅의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한 큰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은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채워 주시고,  
이 시대의 아픔과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 여성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신체·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차별과 인권 침해를 당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포용과 배려의 마음을 주셔서  
모두에게 이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굽어 살피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자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들을 보살피도록 이끌어주시고,  
그들의 이웃되어 저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셔서  
주님 말씀이 저희 가운데 풍성히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생명의 하나님!  
코로나바이러스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결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맺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고  
위로하고 사랑하도록 해주시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주님이 주신 평화가 서울YWCA의 실무자와 이사, 위원에게  
함께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요일

이사·위원·  
실무자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4-5)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3)

박진선  
생명운동팀  
부장

주님의 거룩하신 계획하심에 따라  
저희를 서울Y로 부르시고, 함께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기 다른 저희의 모습처럼 부르신 과정, 허락하신 달란트,  
섬기는 역할 또한 다르지만  
그것이 높고 낮음의 다름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소서.  
각자의 선 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존중함으로 서로를 세우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므로  
평화의 세상을 일구는 딸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 위기로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를 겸허히 돌아보게 됩니다.

창립 100년의 시간!  
그 역사 속에 임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자리에 다시 서게 하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해야 할 바를 묻고,  
길을 찾는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로  
세워주시길 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일

세계를  
위하여

주님!

기후 위기, 질병, 차별, 전쟁, 가난 등 다양한 문제들로 세계는  
고통과 다름, 아픔으로 깊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불안과 원망이 아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김미현  
법인사무팀  
부장

우리는 '지구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이 땅은 지금 고통받으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땅은 그저 인간의 유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반성하며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함께 공유해야 할 공공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 이 땅'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킬 수 있고 살릴 수 있게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해주소서.

평화의 주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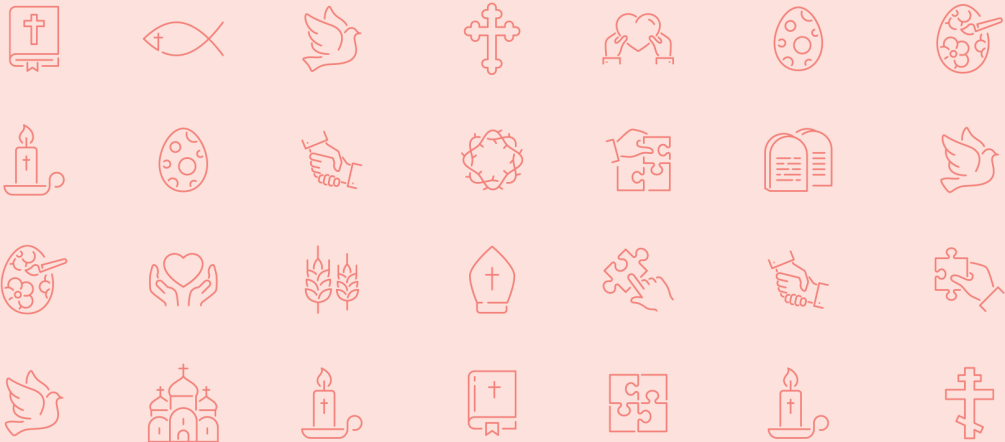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분쟁,  
특히 미얀마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얀마 여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용감한 투쟁이 세계 곳곳에서  
평화의 호소로 높이 울려 퍼져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가닿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이웃에게 참된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함께 걷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소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2022  
02

## 매일공동기도



월요일

###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오점희  
공간운영팀  
부장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4)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키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도 눈동자처럼 살피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서로 다투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기심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고쳐주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세우는 나라 되게 하시며,  
주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하여도  
어떤 일의 결정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느니라 (잠언 16:33)

선거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의롭고 선한 제도의 운영을 통해  
평화를 이루는 나라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이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교회,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지친 영혼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고 혼탁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화요일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방윤옥  
영등포여성  
인력개발센터  
부장

서울YWCA 기독교여성들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100년의 역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서울YWCA를 통해 한국 여성들의 잠재력을 일깨우며,  
정의·평화·생명 세상을 건설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권자이신 주님을 의뢰합니다.  
창립 100년을 맞아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을 선포하며  
세상의 모든 여성과 함께 열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단법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듯 여성과  
시민·지역사회를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책임 있는 운동조직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토지 소유권에 따른 협의와 필요한 자원 마련 과정 가운데  
형통케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봉천종합사회복지관과 누리봄, 강남청소년수련관,  
영등포·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의  
법인 이전의 과정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서울Y 부속시설로서 운영목적에 맞게 재정비되길 기도합니다.  
기도실이 아름답게 완공되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로 쓰임 받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

2022년 비전사업으로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22'를 계획하게 하신 하나님,  
평화와 공동체적 삶, 사회적 영성 확장을 위한  
분야별 22개의 프로젝트를 펼쳐 나아갈 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 공동체를 실현하는  
서울Y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일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김예리  
여성운동팀  
부장

탐욕과 이기심으로 어그러진 이 땅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댈 곳 없이 외로운 이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일상과 생존을 위협받는 이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구원하옵소서.

입으로 사랑을 말하나 정작 사랑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낮은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과 겸손이 우리 삶에도 드러나게 하옵소서.  
허울뿐인 이웃사랑이 아닌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이에게 말을 건네고  
걸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받을 만한 이들을 사랑하는 쉽고 편한 길에서 벗어나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사회가 배척하고 혐오하는 모든 존재를 껴안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서울YWCA의 새로운 100년을 맞으며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이 땅에 오신다면  
찾아가실 이들이 누구인지 헤아려 봅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랑으로 이 땅을 품으며 소망으로 이웃을 일으키는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요일

이사·위원·  
실무자를  
위하여

김현일  
노원여성  
인력개발센터  
부장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12)

주님께서 100년 전 이 땅에 서울YWCA를 세워주시고  
필요에 따라 믿음의 일꾼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서울Y 자원활동가·실무활동가로서 맡은 자리에서 삶을 결단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삶을 요구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창립 100년을 맞이하는 지금, 그리고 새로운 100년의 시작에서도  
정의·평화·창조질서 보전의 가치 중심에서  
주님의 뜻과 서울Y가 나아가는 방향이 일치하도록  
한마음으로 구하고 바라며 기도를 쉬지 않는 일꾼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마음을 다하여 삶을 드리며 주께 하듯 모든 서로를 보듬고 섬기며  
귀히 여기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Y를 통해 이 땅에 작은 변화와 기적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Y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손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일

세계를  
위하여

박혜리  
법인사무팀  
부장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8:12)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산과 변이를 반복하며  
500만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미얀마, 아프간, 시리아, 예멘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전쟁과 폭력이 무고한 이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구 한쪽에서는 음식쓰레기가 넘치지만,  
전세계 7억명 이상이 먹을 것 없어 굶주립니다.  
온갖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며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오늘도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 되신 주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어둠이 걷히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전세계에 회복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가 평화롭지 않다면, 그 누구도 평화로울 수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 안의 한 형제자매된 세계 모든 이들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또한, 작은 일이라도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각 나라의 지도자, 기업가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어둠이 아닌 빛을, 갈등이 아닌 평화를,  
탐욕이 아닌 정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국제운동체로서  
 각국의 여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세계의 YWCA 실무활동가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모든 Y활동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계 곳곳에 Y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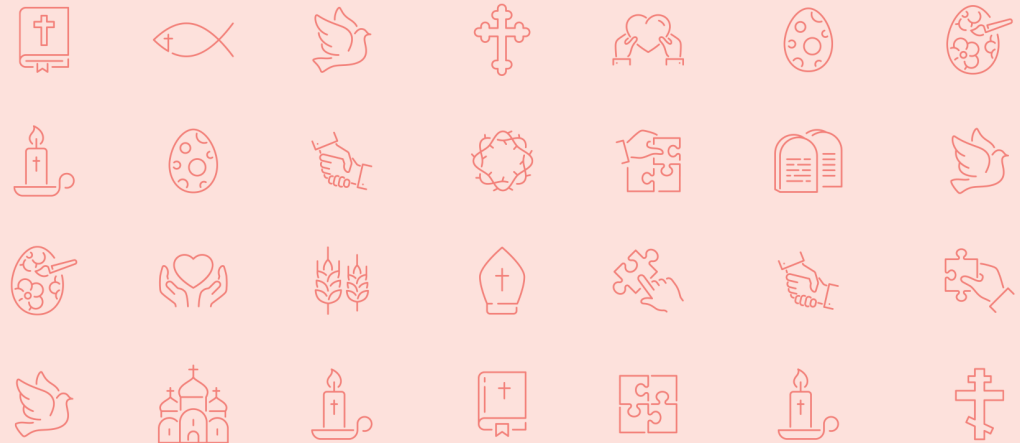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어둠이 아닌 생명의 빛을 좇기로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2022  
 03

## 매일공동기도



월요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김경화  
회원모금팀  
부장

평화의 하나님!  
다툼과 분열, 혐오의 시대 속에서 평화와  
진정한 화합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나라가 갈등과 분열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치유와 화해를 위한 새로운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평화공동체를 위한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희망의 하나님!  
3월9일 선거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잘 분별하여 선출하게 하시고,  
희망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화합과 번영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위험 속에 있는 이 때에,  
최전선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척박한 선교지를 지키며 영혼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각 나라와 세계 열방교회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난과 혼란의 시대에 소명을 다하며,  
용기 있고 신실하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Y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요일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백옥선  
누리봄  
관장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5-6)

말씀을 의지합니다.  
서울Y 100년을 맞이하는 동안 함께 걸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이겨낸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갈 길을 내어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단법인 전환 후 서울Y는 많은 현안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부속시설들의 사단법인 서울Y 전환과 안정된 운영, 그리고 창립 100년,  
그리고 100년 이후를 함께 이끌어 갈 준비된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막힘없이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길 힘을 주시며  
주저앉지 않는 인내를 허락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서울Y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마음으로 뭉치게 하시고,  
깨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움직이는 조직이 되게 하시며  
순종함으로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서울Y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로 서울Y를 통해 이루시기를  
가장 악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요일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오경아  
평생체육팀  
팀장

우리의 음성과 간구에 항상 귀기울이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서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을 들으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자가 이웃이라고 하시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르침이지만 우리도 율법교사처럼  
단지 지식으로만 끝난 적은 없는지 주위를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누릴 수 없는 현실이 되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되고,  
차별이 되고 아픔과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이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귀기울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기 5:18)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  
육체적, 정신적 아픔과 싸우고 있는 이웃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병마의 고통은 힘들고 원망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 안에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평안과 회복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1-2)

우리는 매일 기도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펜데믹 상황에서 삶이 어땠을지 두렵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달리 느리고,  
때로는 한없는 기다림이 될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한 기도를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서울YWCA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목요일

이사·위원·  
실무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29)

참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서울YWCA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부족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필요한 은사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궁 속인 코로나19 상황도 두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더 어렵고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또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의 방향과는  
다르다 해도 주님 가르쳐주신 길, 주님 인도 따라 오늘도 걸어갑니다.  
주님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손발로 실천하는  
서울Y 이사·위원·실무자가 되게 해 주세요.

항상 깨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며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도록 이끌어주세요.  
높고 크신 그 뜻을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는 없으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사·위원·실무자가 하나의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로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살게 해 주세요.  
모든 가정에 건강과 풍요를 허락하사 평안함으로  
기꺼이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해 주세요.

날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계속해서 능히 감당해가기를 두 손 모으며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요,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지희  
홍보출판팀  
부장

금요일

세계를  
위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주님! 세계 만민 모든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복음만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인의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은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전염병 등 창조의 세계가 무너져 가고 있으며,  
지구신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하고 이기적인 죄성으로 곳곳에서  
저희의 생명과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공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회복시키시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주님이 막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모든 나라에 공급되어 코로나로부터 무너진 관계, 믿음,  
경제적 어려움, 건강 등 모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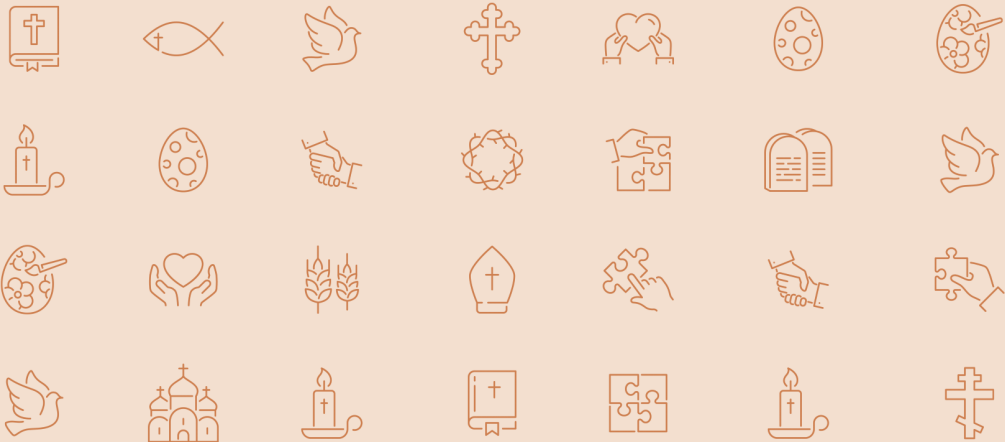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며 주님 품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차별이 아니라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배려와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정승원  
돌봄과살림센터  
팀장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2022  
04

## 매일공동기도



### 월요일

####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김재신  
기도분과  
위원장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의 황무함을 봅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주의 손길 머물지 아니한 적 없었다 믿사오나,  
작금의 현실은 더 암담하고 우울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기에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주께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진리와 정의가 바로서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리사욕이 아닌 오직 공의와 정의를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시며,

지도자와 국민이 한 뜻으로 건강하고 바른 사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경건의 실천을 이루는

한국 교회를 통해 한국 사회가 참된 소망을 보게 하옵시며,

진리의 반석 위에 선 한국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내가 작은 교회임을 알고,

나로부터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이 시작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화요일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백향덕  
기도분과  
위원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원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나 소망할 수 있음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서울YWCA를 언제나 사랑하셔서 세밀하게 지금까지 돌보시며  
지난 100년의 역사 동안 여러 필요를 채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울YWCA의 재정적 안정이 더욱 필요함을  
주님 아시오니 채워 주시고,  
무엇보다 서울YWCA가 늘 기도 가운데  
더 활발한 운동성 있는 단체가 되어서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새롭게 편성된 분과모임이 활성화되고  
개편된 실무조직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전문적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서울YWCA를 향하신 주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이희전  
기도분과  
위원

자비로우신 하나님!  
추운 겨울을 지나 봄바람에 고개를 들어보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차갑고 힘들고 무겁기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이들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사  
깨끗이 쾌유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슬픔을 겪은 가정은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목숨이 폭탄 속에서 희생되고  
해맑았던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여! 평화를 구하는 우리의 소망을 뿌리치지 마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100여 년 전 불모하고 궁핍했던 이 땅에서  
피흘린 수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지금도 굶주리는 사람들, 폭력과 불평등에 슬피 우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박해 받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봉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목요일

이사·위원·  
실무자를  
위하여

정수경  
기도분과  
위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2)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됨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놀랍고도 특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서울YWCA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은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맡겨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맡겨 주시는 모든 사역은 내게 능력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들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서울YWCA 이사·위원·실무자들이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요일

세계를  
위하여

황성연  
기도분과  
위원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그릇된 욕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 되어  
그 땅에 다시금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얀마의 군부 독재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은혜의 손길을 내려주사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이 어디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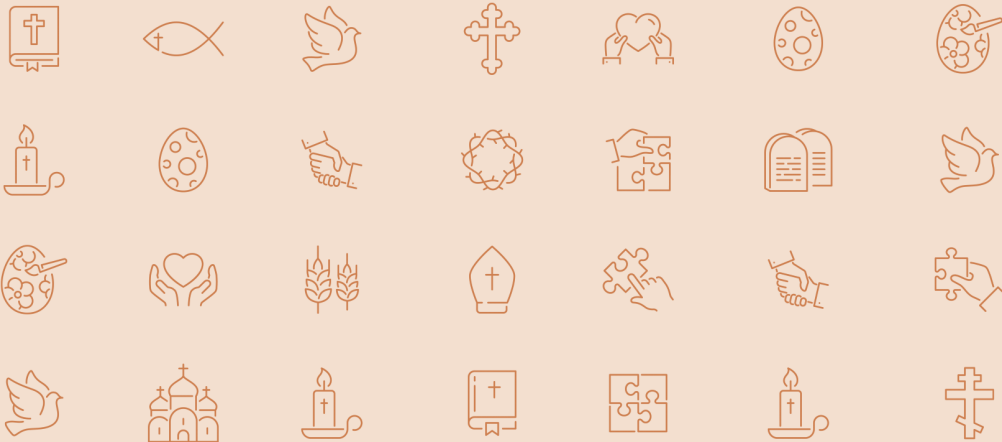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산불, 홍수, 태풍 등의 재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훼손된 환경들이 회복될 수 있는  
절제의 삶에 우리들의 힘을 보태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과 더불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서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2022  
05

## 매일공동기도



월요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이유림  
회장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팬데믹의 긴 터널의 끝을 바라보며 5월에 새 정부의 출범을 기다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별, 세대, 지역, 진영간의 증오와 혐오로

극심하게 분열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누구를 공격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희 안의 날카로운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거짓, 위선, 탐욕, 독선, 오만함을 몰아내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함이 상식이 되고

정직과 성실, 선함이 미덕이 되는 사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

먼저 우리의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죄에 대한 무관심과 패배주의에 빠진 채,

죄에 승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잃어가고

감히 은혜의 이름으로 죄를 정당화하기도 했던

저희의 악함을 용서하옵소서.

약한 자를 살피고 소외된 자를 돌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먼저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각 지체들이 맡겨진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세상을 맑고 밝고 향기롭게 하며

그릇된 가치관과 사고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는데 쓰임받는 교회들로 회복케 하시옵소서.

참 소망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화요일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한혜영  
제1부회장

이 땅 위에 서울YWCA를 세우시고 은총과 연단으로  
100년을 이어오게 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믿음과 봉사와 열정으로 여성공동체를 이루며  
시대를 앞서간 선배들의 여성리더십을 딛고  
지금 이 자리에 선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100년,  
그 너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큰 어려움이 하나씩 풀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하심에 여호와 이레,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앞에 놓여 있는 세금 관련 대출 상황이라는 경제적 어려움,  
법인 전환에 따른 부속시설 이전과 운영,  
시대와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에도 중심 잡는  
사회적 영성에 기반한 기독교 여성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창립 100주년 감사 준비의 모든 과정에  
이 감사의 기도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서울YWCA라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동역자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한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수요일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조연신  
제2부회장

사랑의 주님,  
언제나 함께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육체적,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그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주사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주시고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계속되는 전쟁으로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잃고 천만명이 넘는 전쟁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 두려움에 떨며 절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고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다시금 희망을 선포하는 평화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있습니다.  
몸이나 마음이 아프지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또 미혼모와 자녀들, 보호종료청소년들,  
가정폭력에 고통 당하는 여성들,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코로나로 왕래가 어려워지면서  
더 심한 어려움과 고립된 환경에 처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북한에서 생계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 어려운 그때에 우리와 함께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

이사·위원·  
실무자를  
위하여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잠언 2:20)

참 좋으신 주님!

100년 전 사회·정치·문화 모든 상황이 척박했던 이 땅에  
YWCA를 세워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한나  
제1회계  
이사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만 매순간 겸손히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먼저 Y 안에서 실무활동가로,  
자원활동가로 서로 지체된 한몸임을 기억하고  
사랑과 기도로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  
서로에게서 위로와 힘을 얻는 초대교회와 같은 본이 되는  
공동체가길 원합니다.

미움과 다툼, 분쟁과 전쟁이 끊임없는 세상에서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주함을 잠시 내려두고 더 깊고 은밀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 같은 우리의 기준으로 가리워진  
맘과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공감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간구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정의·평화·생명세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금요일

세계를  
위하여

사랑의 주님,  
나라를 빼앗기고 여성교육에 대한 이해조차 없던 이 땅에  
서울YWCA를 허락하시고, 그늘에 가리고 고뇌에 싸인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육하게 하시며, 100년을 한결같이 인도해 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복희  
제1서기  
이사

팬데믹으로 인하여 수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잃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손으로 만져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전쟁과 폭력, 불평등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세계 곳곳에 아직도 만연한 차별과 편견이  
개선되고, 전쟁이 끝나며, 낮은 곳에 놓인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존중하는 세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청소년들이 교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거나  
상처가 깊어감으로 인하여 삶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며,  
무너져 내리는 수많은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인류가 훼손하고 파괴한 자연으로 인한 기후변화위기의  
재해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회복운동을 통하여 전세계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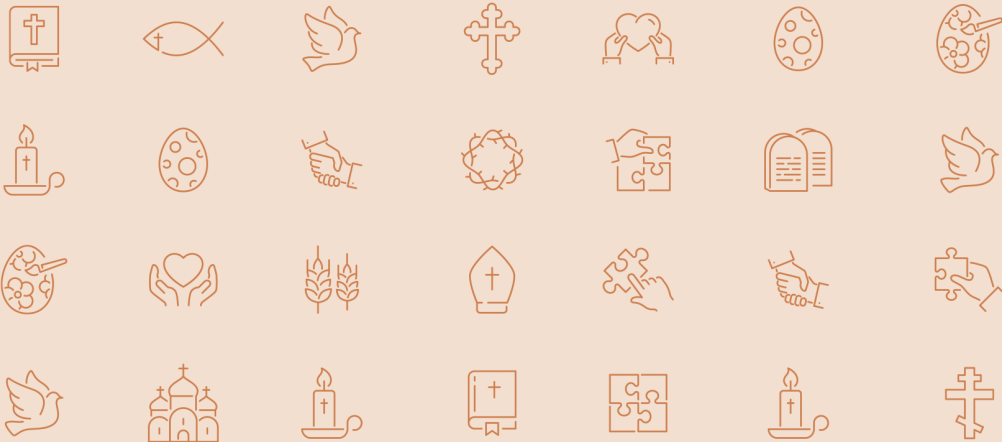
마침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  
폭력과 자기 위안보다 하나님 안에 형제자매 됨을 더 기뻐하며,  
이 땅에 정의·평화·생명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며  
서울YWCA가 세상의 모든 여성들과 함께  
열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2022  
06

## 매일공동기도



### 월요일

###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극심한 경쟁 속에 낙오되고,  
소외되어 신음하는 사람들, 불의와 불공정 속에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포용과 배려가  
살아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전현숙  
여성참여위원회  
부위원장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선출된 국가지도자와 공직자들에게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겸손과 지혜,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소서.  
굳어진 저희의 마음, 목이 굳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임이 선포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화요일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 서울YWCA 이름 아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와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서울YWCA가 안고 있는 현안 과제 하나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이은령  
회원활동위원회  
위원장

회원증모가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우리 사회의 선한 변화를 만들어 낼 많은 회원들을 모아 주시고,  
이사과 실무진들이 서울YWCA는 오직 회원들의 기관임을  
다시 명심하고 회원 한분 한분을 섬기고 주목할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인 젊은 여성청년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서울YWCA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사·위원·실무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를 써주신 지난 100년 서울YWCA의 역사를 묵상하며  
앞으로의 서울YWCA 100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스스로의 삶에 실천하는 Y운동체로 늘 깨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강건한 희망과 위로,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등 전쟁과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  
눈을 돌려 전쟁 종식을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존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 기도하는  
서울YWCA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무너졌던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은 더 큰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재난은 아프고 어려운 사람에게 더 가혹한 법인데  
이들이 좌절에 갇혀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이제 모두가 평상(平常)을 회복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힘들었던 이웃들이 희망을 가지고  
재건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배정미  
청소년위원회  
부위원장

저희가 혹시 발견하지 못하는 이웃의 아픔이 있다면  
그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저희가 혹시 마음이 미치지 못해 이웃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메꾸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거리두기로 인해 벌어졌던 여러 가지 틈을  
하나님의 사랑과 온기로 메울 수 있도록  
서울YWCA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울과 소외가 더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러한 우리 공동체의 균열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서울YWCA가 아픈 결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한 사랑과 실천의 도구를 간구하였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목요일

이사·위원·  
실무자를  
위하여

Y 100년,  
주님 손잡아주셨기에 믿음 붙잡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며 간구합니다.  
실무자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주님 일을 기획할 수 있도록  
성령충만과 지혜 주시옵소서.

송길례  
국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이사와 위원들은 전심으로 동역하게 하사  
다시 시작하는 100년 비전을 설계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의사 결정으로 Y사업이 세상에 빛을 쓰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

세계를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보혈이 이 땅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전세계를 덮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김선희  
소비자·  
환경위원회  
위원장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지역, 국가, 그리고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여! 처음 때와 마지막 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온 땅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 또한 관심을 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고통의 신음소리와 미얀마의 참극과 중동의 테러와 전쟁  
제3세계의 가난과 압제, 선진국들의 타락과 배교 등  
세계 곳곳의 고통의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따라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입술에 기도의 권세를 입혀 주옵시고 께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 같은 우크라이나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위에 속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묵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열납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2022  
07

## 매일공동기도



월요일

###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김명희  
시설운영·  
사업위원회  
위원장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2:12-13)

신실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분열과 갈등이 난무하고,  
서로를 혐오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위정자들이 갈라지고  
국민이 갈라져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되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정직한 나라, 평등한 나라를 위해 정치·경제 모든 분야에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만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빛을 발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시어 우리들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시대의 암울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과 섬김으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과 찬송과  
기도로 거룩함이 회복되는 이 땅의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요일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서울Y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100년 동안 늘 함께하시고 돌보셨음을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100년과 그 너머의 시간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Y의 선한 사업에 함께 할 좋은 일꾼들과 필요한 물질을  
풍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100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법인으로서 다듬고 갖추어야 할  
남은 과제들을 Y에 가장 적합하도록  
지혜롭게 해결하게 하시옵소서.

배은경  
홍보출판위원회  
위원장

실무자와 자원활동가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또 모든 것을 사랑과 은혜로움으로  
함께 하나님의 Y역사를 이루어나가게 하시옵소서.



수요일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하나님,  
도무지 설 줄 모르는 인간은,  
다른 사람들은 물론  
피조세계에도 폭력적일 때가 많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원초적 복이지만,  
그 일이 고역이 되기도 합니다.

7월  
서울YWCA  
공동기도문

삼복더위는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순응하며 살라고 요구합니다.  
이제 숨 돌리 사이 없이 질주하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 속도를 조율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목요일

이사·위원·  
실무자를  
위하여

이지선  
평생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우리의 삶을 언제나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100년 전 이곳에 서울YWCA를 세우시고  
'활동가'라는 하나님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꿔 왔던 선배님들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이사·위원·실무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손길마다  
세상을 위한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일꾼으로 소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를 말씀과 기도보다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서울YWCA 활동을 통해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가 서로 협력하여  
사회적 책임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힘,  
사회의 변화를 상상하고 만드는 힘,  
더 나은 세상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힘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실행하게 하옵소서.

이사·위원·실무자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일

세계를  
위하여

이옥희  
여성능력개발  
위원회  
위원장

사랑의 하나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며, 생명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건강을 잃거나 생계 위협이나,  
가족을 잃는 아픔 가운데서도 점차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 많은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아직 코로나 역병뿐 아니라, 전쟁과 기아,  
기후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급증하여,  
앞으로 심각한 재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공정하신 주님!  
과거 공산권의 침략전쟁으로 남북이 갈라진 우리처럼,  
영토 탐욕을 채우고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생명 위협과 공포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긍휼히 여기시어,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더구나 이런 전쟁으로 식량위기와 식량 무기화로  
고통을 받게 되는 아프리카 등 세계의 극빈층,  
특히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의 위협에 노출된 어린이들을 기억하소서.  
오병이어기적처럼, 이들이 기아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유사한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북한 주민을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 위협과 영양결핍에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북한 땅에 간절히 올바른 영양과 보건정책을 희망합니다.  
권력보다는 기아와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선민정책이  
북한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기후위기에 심각히 노출될 미래세대를 생각하여 우리 모두가  
이기적인 님비현상에서 벗어나  
환경을 보호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땅의 선각자로서 YWCA가  
무지한 국민의 계몽활동에 앞장선 지 백년이 됩니다.  
저희도 이런 Y선배의 정신을 본받아 초심으로써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2022  
08

## 매일공동기도



월요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임혜원  
시설운영·  
사업위원회  
부위원장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주춤하였던 코로나는 요즘 새로운 변이 발생으로  
재확산되고 있고 전쟁의 지속과 글로벌 경제위축으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 오고 있으며,  
세계 곳곳의 기상이변은 인간 삶의 터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암울하게만 느껴지는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절제되지 못한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자연계를 포함하여 타자에 대한 배려 없음 등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치 못하고 멀리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로알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 된 교회임을 자각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견고하여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8월의 뜨거운 여름 날씨만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여 비록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명 받은 일에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적인 매일의 삶도  
주께 드러질 수 있도록 주관하시옵소서.

주님의 일로 성령의 열매 맺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요일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황혜진  
봉천종합사회  
복지관위원회  
위원장

주님!  
100년을 맞이하는 YWCA를 있게 해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윗선배님들의 땀과 정성, 시간, 그리고 헌신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한 일들이  
진정 주님을 위한 일들이었는지 반성해 봅니다.  
100년을 맞이하는 우리 서울YWCA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에 나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기독교 정신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Y의 기본 이념에 따라 정의, 평화, 생명세상을 이루려는  
서울YWCA를 기억하사 도움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아닌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고,  
새로운 100년을 향하는 모든 우리 Y동지들과  
늘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수요일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일상의 삶을  
조금씩이나마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여름 무더위 가운데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24시간 바쁘게 돌아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좁은 병실에서 여러 형편과 처지로 입원해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의 결사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돌아보시사  
하루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의료진들에게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치료의 능력으로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서울YWCA의 모든 회원들이 우리의 삶이 유한함을 알고  
주변에 있는 아프거나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사랑과 치유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명금  
봉천종합사회  
복지관위원회  
부위원장

목요일

이사·위원·  
실무자를  
위하여

사회, 경제, 질병 등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광야로 나아가 말씀 증거하던 세례 요한!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던 사도 베드로!  
땅 끝까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금을 인내하며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경연  
노원여성인력  
개발센터위원회  
위원장

서울YWCA가 수익사업을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고유목적 사업이 동력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의 향기가 이 세상에 질게 퍼져나가도록  
이사·위원·실무자 모두 힘을 모아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것을 믿지만,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무기력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시옵소서.

이사·위원·실무자 모두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주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주목하며  
주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기로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앞서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없는 발길을 떼지 않으며,  
사랑 없는 말로 상처 주지 않도록  
항상 동행해 주시고, 온전히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서울YWCA의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금요일

세계를  
위하여

정선덕  
강남청소년수련관  
위원회  
위원장

은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계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한  
전쟁과 독재, 기후위기와 재난 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총성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미얀마의 군부독재에 탄압받는 민중의 고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또 그들을 위해 평화를 구하는 기도소리에 귀기울여 주시사  
다시금 평화와 안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생태계는 파괴되고 지구 곳곳에서  
이로 인한 재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여, 다스리라 주신 이 땅의 창조질서를 해하는  
모든 행동을 깊이 회개하게 하시고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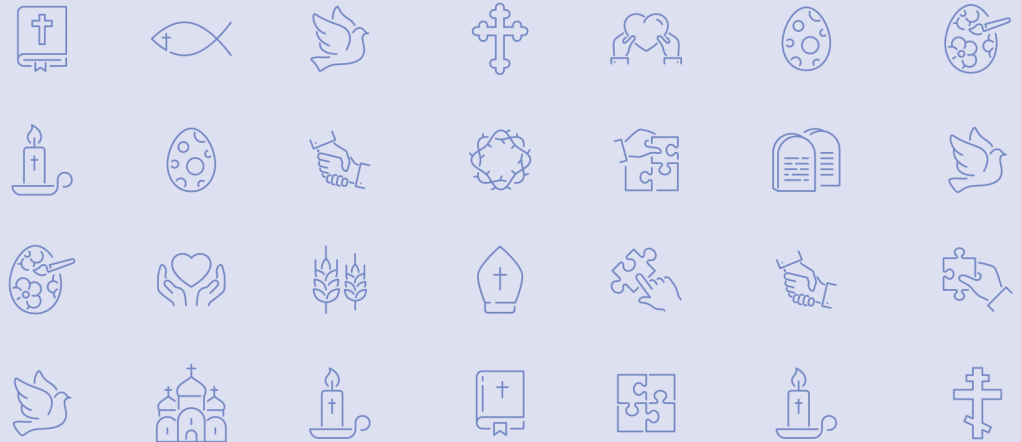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온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우리 형제인 북한에서부터 세계 각 곳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지치지 않도록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2022  
09

## 매일공동기도



월요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조종남  
직전 회장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여러 면에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더욱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밝은 견해를 소리내어 주장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전세계 열방 중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새 바람을 이 땅에 불어오게 하소서.

또한 한국의 교회가 우리 사회를 깨우치고 이끄는  
많은 역할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받은 사랑을 당연시하고 때로 오만하여  
사회의 등불이 되고 등대역할을 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각오로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100주년을 맞이한 서울YWCA가  
큰 언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요일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김양선  
사무총장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100년의 여정을 함께 하며 서울YWCA가 이 땅에  
기독교여성시민단체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00주년의 서울YWCA가 풀어나가야 할 많은 과제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눈앞의 작은 고통과 근심에 얽매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소명 따라 함께 기도하고 존중하며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함께 나아갈 때  
얽힌 실마리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100년 역사의 서울Y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달음은 실천으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잘못된 생각은 바로 세워 주시고 교만과 불필요한 욕심,  
고집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은 정직과 신뢰의 서울Y,  
생명을 살리는 서울Y 되게 하소서.  
서울YWCA가 지속가능한 기독교여성공동체,  
지역조직운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의 100년의 길도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수요일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외받는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갖고 힘겨운 여정을  
건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강민아  
영등포여성  
인력개발센터  
관장

자연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과 특히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병상을 지키는 자녀들, 자녀의 아픔을 함께하는 부모들,  
가까운 친지, 사랑하는 친구,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그리고 우리 이웃의 아픔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픈 결사함과 함께하는 저희 모두 결코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전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요일

이사 · 위원 ·  
실무자를  
위하여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0:4)

서울YWCA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에베에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도우시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은희  
봉천종합  
사회복지관  
관장

어렵고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갔던 서울Y 1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간  
믿음의 ‘사명자’들의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뒤를 이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저희들에게도  
제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허락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 앞을 실천하고  
전달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기쁨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쓰는,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사 · 위원 · 실무자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강 같은 평강과  
바다 물결 같은 공의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8:21)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의 약속으로 저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고 변화되어 나아질 수 있는  
주님의 새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주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과 이 땅 위의 생명들을 고통과  
죽음의 나락으로 밀어넣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계는 지금도 종교와 인종과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인간과 자연을  
훼손하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목적지 없는 피난길에 내몰리고 있고,  
나라와 가족을 위해 매일 죽음의 전장에서 고통의 날들을 견뎌냅니다.  
미얀마에서는 자유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저항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분쟁과 다툼으로  
주님이 만드신 생명을 인간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죄를 용서하신 이 땅 위에서 인간은  
그 악한 본성을 숨기지 못하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에 우는 자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 소리마저도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함에 익숙해지고,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져 갑니다.

주님, 우리의 악함은 언제나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힘없는 사람들이  
희생의 맨 앞줄에 서게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용기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그 고통의 당사자가 될 것이라는  
진실에 눈감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이신 무지개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의 악함을 미리 아시고도  
먼저 용서하신 그 크고 넓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이 용서하신 이 땅 위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결국은 평화 위에 생명을 지켜내는  
정의를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2022  
10

## 매일공동기도



월요일

###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우영숙  
노원여성  
인력개발센터  
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옳고 그름이 사라지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이 나라의 안위를 주께 맡깁니다.  
 경제가 힘들어지니 어려운 사람은 더욱더 삶의 무게를  
 크게 느낍니다. 그들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여 주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다른 종파들의 소리를 화합하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이 나라와 교회를 어여뻐 여겨 주시고  
 오늘과 내일을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워 주시어  
 회복된 나라, 화합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Y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100년 서울Y와 함께 걸으시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00년을 맞이하며 함께 걸어주신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서울Y 앞에 놓였던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함께 걸어주시고, 일으켜주셨으며, 깨닫게 하심으로  
서울Y 100년이 가능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단법인 전환으로 서울Y는 수많은 현안을 앞에 두고 있으며,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눈앞에 일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 위에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이끄심을 거부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믿음과 인내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울Y 재정을 살피시고, 운영하는 사람들을 신실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서울Y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신실함으로 동역하는 이들을 보내주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간을 채우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들의 기댈 언덕이 되는  
하나님의 서울Y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서울Y가 되게 하시고,  
100년 이후를 기도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그리고 예수님의 성실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에 맞서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 흐름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뚜벅뚜벅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에 의지하여  
세상의 빛이 되는 서울Y가 되기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일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민혜경  
법인운영국·  
나눔소통국  
국장

참 좋으신 하나님!  
창조세계의 신비와 아름다움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편리함을 위해 기후 위기로 인해  
사람은 물론 자연, 동물들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앞에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고백합니다.  
반지하에 사는 이웃들은 폭우 앞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고,  
폭염과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가난한 이웃들, 약한 이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후 위기 앞에 신음하고 있는 이웃과 동물,  
자연을 위해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라 (누가복음 4:18 중)

주님 말씀처럼 우리 곁에 있는 아픈 결사함과 차별에 아파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외침과 소망에 귀기울이게 하소서.  
서로를 위한 기도와 연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요일

이사·위원·  
실무자를  
위하여

최 봄  
사회운동국  
국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4:18)

사랑의 주님!  
서울YWCA 공동체에 이사·위원·실무자로  
저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사회 기독교여성운동 100년 역사의 한 장면 한 장면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와 지혜로 덧입혀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주님 말씀보다 우리의 주장이 더 앞서지 않았는지  
때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보다  
우리의 발이 먼저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때로는 곁을 내줘야 할 이웃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때로는 두려움으로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았는지  
때로는 하지 않았어야 할 일을 행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고통받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 또한 여러 곳을 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품을 수 있는 환대의 영을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돌봄의 영을 주소서.

새로운 100년의 비전과 소망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두 손 들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이사·위원·실무자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기쁨 누리게 하소서.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를 세움으로써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없는  
따뜻하고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존귀한 주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며  
변함없이 동행해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

세계를  
위하여

김혜옥  
돌봄과살림센터  
국장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28)

그리스도 안에서 지위고하, 성별 나뉘지 않고 모두 다  
평등하고 하나임을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세계 모든 인류가 한 형제자매임을 고백합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군부의 폭력에 희생당하는 미안마,  
큰 수해로 고통받는 파키스탄과 500년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고 있는 유럽, 연속되는 가뭄으로 6년만에  
기아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한 아프리카 대륙 등  
전쟁과 테러,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난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식량 가격 폭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신음하며 아파하는  
우리의 가난한 지체들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실 긍휼의 하나님!  
군사적 갈등이나 긴장과 대결의 분쟁지역이  
평화의 장으로 바뀌어지길 간구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전쟁에 익숙해지거나  
희생자를 돕는 데 인색하거나 지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평화를 위한 대화를 멈추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을 주저없이 도우며  
용기있게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계 곳곳에 일으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성과 청소년이 평화와 화합의 중심이 되어 현재와 미래에  
평화와 화합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며, 환경오염과 기후환경 변화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실천하는 행동을 갖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런 여성과 청소년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지혜롭게 한발 앞서 나가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나가며, 평화의 중심이 되는 서울YWCA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2022  
11

## 매일공동기도



### 월요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김예리  
여성운동팀  
부장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은 채  
각자의 삶에 집중하며 개인의 행복만을 좇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목소리에 분노하기 전에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환대의 마음으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이들의 편에 서며  
어그러지고 굽은 것을 펴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합니다.  
개인의 가치와 이념을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세우는  
분열된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 됨을 이루실 예수그리스도의 평화를 구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파괴된 피조 세계에 아파하며  
생명의 생기로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실 성령의 만지심을 구합니다.

서울Y와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부르심의  
소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위에 높아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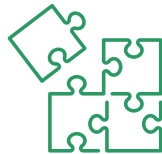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박진선  
생명운동팀  
부장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1922년 이 땅의 여성들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뜻과  
100년 역사 때때마다 함께 계셨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 공동체로 모인 서울YWCA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현재를 딛고 나아갈 길을 겸손하게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십시오.

비영리법인으로서 적합한 운영 전환을 모색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막힌 답을 허무시고  
매인 것을 풀어 주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선한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창립 100주년 기념 전시회, 감사음악회, 찬양여성집회,  
창립기념식 행사가 Y 가족들에게는 연합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 축제가 되고, 냉전의 위기가 감도는 세상에는  
정의와 평화의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100년을 너머 써 내려갈 서울YWCA 역사를 바라보며  
22개 선한영향력프로젝트를 힘써 추진하고,  
선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의 부름에 응답하는  
기독교여성시민단체로 다시 서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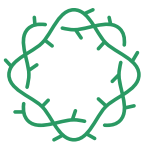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양진화  
평화운동팀  
부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려는 조급함, 내 힘으로 주님 없이 할 수 있다는  
착각과 오만, 내가 제일 잘났다는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현재 우리 사회는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과 능력주의로 인한  
경쟁심화, 차별과 혐오로 불안정한 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의 · 평화 · 생명의 중요성을 참 가치로 실천하는 우리 Y가  
더 낮은 곳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손 내밀고 함께할 수 있도록,  
방관과 침묵하지 않고 사회의 약자 편에 서서  
용기 내어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결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모든 감각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집중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실천으로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요일

이사·위원·  
실무자를  
위하여

김현일  
노원여성  
인력개발센터  
부장

오늘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00년 전, Y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가르쳐 주심으로  
여성의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Y운동의 근간을 세우고 눈물과 헌신으로 짊어져 온  
십자가의 흔적과 사랑을 목도해 봅니다.  
오늘 우리도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깨닫고  
시대에 앞서 나아갈 수 있는 Y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서울Y의 이사·위원·실무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동역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고 있는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사명 감당을 위해 개인의 삶과 일터와 영성도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마다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구하고  
감사의 영성이 마르지 않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

세계를  
위하여

박혜리  
법인사무팀  
부장

욕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로마서 8:6, 새번역)

생명과 평화의 주님,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가 욕신에 속한 생각으로 살아온 결과,  
온 세계가 전쟁, 불평등, 기후위기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나,  
우리는 당장 눈앞의 욕심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평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 온 인류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욕신에 속한 생각을 멈추고  
성령에 속한 생각으로 돌이키기를 기도합니다.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마다 용서와 화해가 넘치게 하시고  
성장지상주의를 벗어나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며  
너나 할 것 없이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생명과 평화를 위한 도구로 기꺼이 헌신하고 있는  
세계 120개국의 YWCA들이 이 세상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소서.  
세계 모든 피조물들의 살롬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2022  
12

## 매일공동기도



월요일

###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박미용  
재무회계팀  
부장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 나보다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이웃을 살피던 사람들이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가진 것은 늘어나는데 정신적 궁핍은 더 심해지고,  
무엇이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관심조차 없는 듯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심으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의와 옳고 그름이 가려지고 혼탁한 세상을,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은 정직하게 일하고 공의를 위해 힘쓰며,  
사람들은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비난이 아닌 따뜻한 비판의 시선을 갖게 하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나라와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  
더 나아가 혼돈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친 자들, 약하고 상한 자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요일

서울YWCA  
현안을  
위하여

오점희  
공간운영팀  
부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사랑의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은  
감사한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창립 100년을 맞이하며 오랜 역사의 시간만큼  
기대와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사단법인이라는 큰 산을 넘으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하나 되어 걸었던 걷기대회부터  
'내일 빛 캠페인' 모금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보았고,  
그동안 감사한 분들과 함께한 음악회는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따스한 감동으로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제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전시회와 기념식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계획 안에 드러나게 하시고,  
YWCA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처음으로 사단법인의 온전한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처음 하는 게 너무 많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소외된 이웃과  
아픈 결사함을  
위하여

이인순  
돌봄과살림센터  
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사랑의 하나님!  
서울YWCA 창립 100년을 기념하고, 2022년을 마감하는 12월입니다.  
추워지면 더욱 움츠러드는 이 땅의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과  
아파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모자란 마음과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살피시고 창녀와 세리를 친구 삼아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이 계절에도 이 땅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 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깨어져버린 마음과 깨어진 가정들,  
관계들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에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사  
그들의 빛이 밝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부와 사회, 서울YWCA 공동체,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모두가  
가난한 자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에 귀기울이고  
찢긴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고통 당하는 자들을 돌보고,  
치유하여 회복케 하는 일에 전심으로 힘쓰게 하시옵소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있지 못하고 화석이 되려 할 때마다  
내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되게 하사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며 창조질서의 보전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서울YWCA 공동체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며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요일

이사·위원·  
실무자를  
위하여

성지희  
홍보출판팀  
부장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10)

그 어느 곳보다 이 땅을 아끼고 사랑해서  
100년 전 YWCA를 세우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히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 마음과 물질을 허락하사  
서울Y 이사·위원·실무자로 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립 100년을 감사하며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는 않았는지,  
선한 일꾼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왔는지 생각하면 부끄러워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사  
몸과 마음이 다시금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겸손, 정직한 기도, 진실한 실천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사·위원·실무자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놀라운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새롭고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 주시리라 믿으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

세계를  
위하여

김경화  
회원모금팀  
부장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이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생명의 터전이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죽음과 파멸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중단되게 하시고  
민간인들, 어린이들의 희생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위정자들이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 평화의 길로 접어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가 창조의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모든 생명들이 생기를 잃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끝없이 성장을 욕망하며 지구의 자원을 소비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옵소서.  
창조세계의 온전함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늘과 숲, 강이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지구촌 안에 우리 모두 한 형제자매임을 기억하고  
평화와 연대의 손을 잡고  
전쟁과 폭력, 푸른 지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창립 100주년 무릎으로 만나는 하나님 II 매일공동기도

무릎으로  
기도문 모음집 만나는  
하나님

**발행인** 이유림 회장  
**편집인** 김양선 사무총장  
**편집위원장** 김재신 기도분과위원장  
**편집위원** 기도분과위원 백향덕 이희전 정수경 황성연  
**편집** 김은희 김혜옥 박진선  
**발행처** (사)서울YWCA  
**전화** 02-3705-6000



깨어 기도하는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